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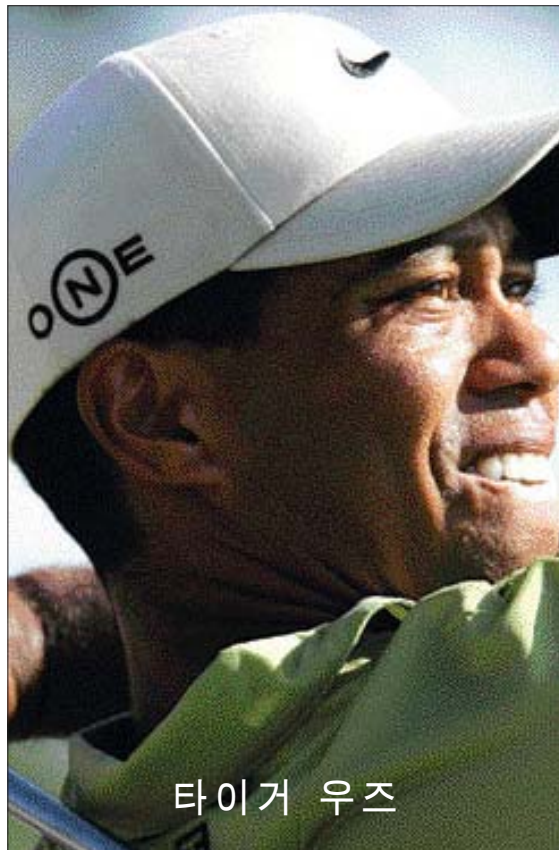
세계적 양산의 환상적인 골프장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함평 다이내스티 컨트리 클럽

인터넷회원 주중그린피 할인

- 5일전 부킹 1만원 할인
- 3일전 부킹 2만원 할인
- 1일전 부킹 3만원 할인

예약 : www.hpdynasty.co.kr 061)320-7700, 7714



타이거 우즈

“우즈 최대 라이벌은 최경주”

미국의 공중파 방송인 NBC가 '완도 탱크' 최경주(37·나이키골프)를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미국)의 가장 강력한 경쟁 상대로 꼽았다.

NBC는 29일(한국시간) 인터넷판에 골프 전문 칼럼니스트 마이크 퍼키의 '최경주가 타이거의 가장 큰 위협'이라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 "페덱스컵 포인트에서는 스티브 스트리커가 1위를 달리고 있지만 우즈가 걱정해야 할 쪽은 스트리커가 아니라 최경주"라고 보도했다.

이 기사는 "최경주가 최근 7번의 대회에서 우승 2회, 준우승 1회, 브리티시오픈 공동 8위 등 상승세를 타고 있다"면서 "만일 최경주가 남은 세 번의 페덱스컵 대회에서 우승을 한 번 차지할 경우 우즈는 우승 한번, 5위 이내 진입 한번 등을 해야 그를 따라잡

美 NBC 페덱스컵 관련 보도

“최경주 최근 놀라운 상승세”

을 수 있다"고 전했다.

현재 최경주와 우즈의 페덱스컵 포인트 차이는 2천900점으로 최경주가 2위, 우즈는 4위를 달리고 있다.

또 영국의 도박업체 레드브룩스는 페덱스컵 두 번째 대회인 도이체방크챔피언십에서 우즈가 우승할 가능성을 7-4로 가장 높게 평가했다. 우즈에 이어서는 필 미켈슨(미국)이 16-1로 두 번째를 차지했으며

최경주는 비제이 싱(피지) 등과 함께 25-1로 공동 3위에 올랐다. 앤서니 김(22·나이키골프)도 80-1의 우승 확률로 공동 22위에 이름을 올렸다.

한편 이번 대회 1라운드 조 편성은 페덱스컵 포인트 순위에 따라 1~3위에 올라있는 스트리커와 최경주, 로리 사바티니(남아공)가 한 조로 편성됐고 4~6위인 우즈, 미켈슨, 싱이 함께 치게 돼 이들 조에 갤러리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스트리커는 최경주와 AT&T내셔널에 이어 바클레이스에서 챔피언즈에서 함께 경기를 치러 1승1패를 기록하며 올해 최경주와 맞대결이 잦았다.

최경주는 한국시간으로 31일 밤 9시22분에 1라운드를 시작하고 우즈 조는 9월1일 새벽 2시07분에 출발한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최경주

2007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

‘황색 탄환’ 류시앙 1회전 가볍게 넘어

남자 110m 허들 준결승 진출

이신바예바 장대높이뛰기 금

‘황색탄환’ 류시앙(24·중국)이 가볍게 1라운드를 통과했고 ‘미녀세’ 엘레나 이신바예바(25·러시아)가 장대높이뛰기 2연패를 이뤄내며 ‘세계에서 가장 높이 날아오른 육상 스타’가 됐다.

류시앙은 29일 일본 오사카 나카이 스타디움에서 열린 2007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남자 110m허들 예선에서 13초36에 결승선을 끊어 1조 1위로 준결승에 진출했다.

2004년 아테네올림픽에서 ‘동양인은 올림픽 육상 단거리에서 금메달을 따낼 수 없다’는 서구의 편견을 보란듯이 깨트리며 금메달을 따냈던 류시앙은 세계기록(12초88)까지 보유하고 있지만 아직 세계선수권대회 금메달을 만져보지 못했다.

110m허들 준결승은 30일, 결승은 31일 밤 펼쳐진다.

이에 앞서 이신바예바는 28일 밤 열린 여

자 장대높이뛰기 결승에서 4m80에 걸린 바를 뛰어넘어 카테리나 바두로바(체코), 스페틀라나 페오파노바(러시아·이상 4m75)를 제치고 우승했다.

이신바예바는 우승을 확정된 뒤 자신의 세계기록(5m01)보다 1cm 높은 5m02에 세 차례 도전했으나 모두 실패했다.

여자 멀리뛰기에서는 타티아나 레베데바(러시아)가 유일하게 7m를 넘긴 7m03의 기록으로 류드밀라 콜차노바(6m92)를 제치고 우승했다.

지난 대회 세대뛰기 챔피언 레베데바는 멀리뛰기까지 활약을 ‘지상 도약의 여왕’ 자리를 지켰다.

중거리와 장애물 경주에선 케냐의 남녀 철각들이 활활 날아다녔다.

킵프 킵프투가 이끄는 케냐 3인방은 남자 3,000m 장애물 1~3위를 싹쓸이했고, 여자 800m에서도 케냐의 자네스 캄코스케이가 우승했다.

한편 중거리에서 독보적인 페이스를 펼쳤던 모잠비크의 35세 노장 마리아 무틀라는 800m 결승점을 앞두고 트랙에 쓰러지는 불운을 맞았다.



중국의 류시앙이 29일 일본 오사카 나카이 스타디움에서 열린 2007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남자 110m허들 예선경기에서 허들을 넘고 있다. /AFP=연합뉴스

오초아 빠진 LPGA 스테이트팜클래식

한국남자들 “시즌 5승 기회”

시즌 다섯번째 우승을 미뤄온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코리안 시스터스’의 우승 전선에 파란불이 켜졌다.

31일(이하 한국시간) 일리노이주 스프링필드의 랜더 크리크골프장(파72·6천649야드)에서 나흘간 열릴 스테이트팜클래식은 독주 체제를 갖춘 세계랭킹 1위 로레나 오초아(멕시코)가 결장한 가운데 치러진다.

브리티시여자오픈과 캐나다여자오픈, 세이프웨이클래식 등 최근 3개 대회를 잇따라 제패한 사실상 상금왕과 다승왕 타이틀을 굳힌 오초아는 캘리포니아를 거쳐 고국 멕시코로 휴가를 떠났다.

뿐만 아니라 올해 ‘코리안 길러’로 등장한 상금랭킹 2위 수잔 페테르센(노르웨이), US여자오픈 챔피언 크리스티 커(미국), 그리고 상금랭킹 3위 폴라 크리머(미국)도 출전자 명단에 없다.

작년 이 대회 우승자이자 세계랭킹 3위 안니카 소렌스탐(스웨덴)이 타이틀 방어

에 나서지만 이제 소렌스탐의 존재는 한국 선수들에게 그다지 위협이 되지 않는다.

더구나 소렌스탐은 그동안 사귀어 오던 사업가 마이크 맥키와 최근 약혼식을 올렸고 코스 설계와 아카데미 개설 등 필드 밖에 바쁜 일정을 보내는 등 경기에 집중할 처지가 못된다.

메이저대회인 나비스코챔피언십을 제패한 모건 프레스미(미국)와 세계랭킹 2위 카리 웹(호주)이 출전하지만 한국 선수들이 넘지 못할 장벽은 아니다.

지난 7월 23일 HSBC메치플레이 챔피언십에서 이선화(21·CJ)가 정상에 오른 이후 4개 대회에서 우승없이 보낸 ‘코리안 시스터스’에게는 시즌 다섯번째 우승컵을 차지할 절호의 기회인 셈이다.

1999년 이 대회에서 생애 첫 우승의 감격을 누렸던 김미현(30·KTF)은 시즌 두 번째 우승과 8년만의 정상 탈환을 노리고 있다.

이밖에 이선화, 김영(27), 이정연(28), 그리고 안젤라 박(19), 민나은(19), 김인경(19), 오지영(19) 등도 시즌 다섯번째 우승을 노리는 ‘한국 군단’에 힘을 보탠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박태환 내달 3일부터 훈련 재개

‘마린보이’ 박태환(18·경기고·사진)이 다음달 3일부터 다시 물살을 거른다.

박태환 전담 코치인 박석기 전 경영대표 감독은 “다음달 3일부터 훈련을 재개하기로 했다. 하루빨리 훈련을 하는 게 중요하지만 휴식과 함께 친구를 만날 시간도 필요한 모양”이라며 “쉬는 걸 허락하는 대신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는 걸 명심시켰다”고 29일 밝혔다.

박태환은 지난해 열린 프레올림픽 2007 일본국제수영대회 자유형 400m 금메달, 1,500m 동메달을 목에 걸며 올림픽 메달 가능성을 밝힌 뒤 25일 귀국해 휴식을 취하고 있다.

작년 말 도하아시아게임이나 지난 3월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이후 한 달 가량 휴식을 취했지만 이번에는 열흘 정도 쉬다가 훈련을 다시 시작하는 것.

이는 오랜 휴식이 오히려 컨디션과 경기 감각을 떨어뜨린다는 걸 절감했기 때문이다. 특히 더 이상 ‘버락치기’ 훈련이 아니라

베이징까지 남은 1년 동안 꾸준히 준비해야 한다. 훈련의 초점은 일단 스피드를 끌어올리는데 맞춰진다. 이는 10월 초 광주에서 열리는 전국체전을 대비한 것이다.

박석기 감독은 전국체전에서 개인혼영에 도전할 계획이었지만 자유형 이외에 평영, 배영, 접영 등 다른 영법이 완성되지 않아 취소했다. 대신 100m와 200m 등 단거리 자유형에 나서 스피드 훈련 성과를 가늠할 계획이다. 박태환의 주종목은 장거리이지만 100m에서 한국기록(50초02)을 보유하고 있고 200m는 1분46초73으로 아시아기록을 갖고 있는데 이를 더 단축하는 것이 전국체전 목표다.

수영 훈련 재개는 좀 더 디지털 웨이트 트레이닝은 좀 더 빠른 29일부터 시작한다.

박태환은 김기홍 웨이트 트레이너와 함께 매일 1시간30분씩 그동안 키워온 근력을 유지하면서 일본 대회 때 모자랐던 근지구력을 끌어올리는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美 가이 ‘스프린트 더블’ 도전

(100m·200m 동시 우승)

그린·케이틀린 이어

역대 세번째 ‘인간탄환’ 노려

모리스 그린→저스틴 게이틀린→타이슨 가이(?)

2007 오사카 세계육상선수권대회가 낳은 최고의 스타 타이슨 가이(25·미국·사진)가 피로와 부상을 딛고 사상 세 번째 ‘스프린트 더블 클럽’ 가입을 꿈꾸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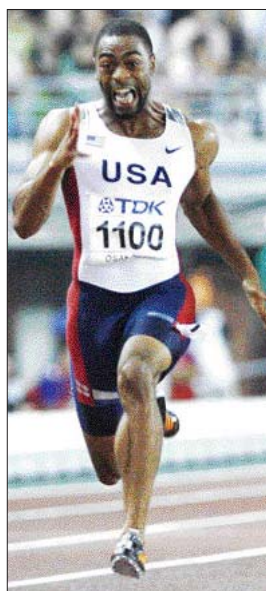
스프린트 더블 클럽은 단거리 기본 종목인 100m와 200m를 휩쓴 ‘인간 탄환’에게 붙여주는 영예다.

지금까지 이 클럽에 가입한 선수는 모리스 그린과 저스틴 게이틀린(이상 미국) 두 명이다.

그 중 게이틀린은 금지약물 복용으로 육상계에서 영구 제명된 상태라 진정한 클럽 회원은 그린 한 명 뿐인 셈이다.

가이는 30일 밤 10시20분 오사카 나카이 스타디움에서 대기록에 도전한다.

100m에서 9초85로 아시아 파월(자메이카)을 여유있게 제치고 우승한 가이는 200m에서도 올 시즌 최고기록(19초62)을 갖고 있다.



가이는 또 1996년 ‘바람의 아들’ 마이클 존슨(미국)이 만들어낸 뒤 11년째 깨지지 않고 있는 200m 세계 기록(19초32)에도 0.3초 차로 근접했다.

2라운드에서 가이는 20초18을 찍어 경쟁자인 우사인 볼트(자메이카, 20초13),

팀 동료 윌러스 스피어먼(미국, 20초26)보다 빨랐다.

가이 앞에 놓인 더 큰 적은 피로와 부상이다.

가이는 35~36°C의 폭열 속에 사흘 간 레이스를 펼쳤고 왼쪽 허벅지 근육통에 시달리고 있다.

가이가 현역 선수로는 전인미답의 스프린트 더블을 이뤄낼지 세계가 오사카를 주목하고 있다.